

## 韓國 中小企業의 中國進出 現況과 問題點 分析

朴 東 烈  
經營學科

### <요 약>

일반적으로 수출시장이 開拓된 이후 經濟的 與件의 變化로 海外直接投資가 일어난다. 그러나 중국시장의 경우, 수출과 해외투자의 時差間隔이 매우 좁다. 또한 북미 및 유럽 시장에의 직접투자는 資本集約的이고 尖端技術 習得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므로 大企業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향이 있으나, 중국에의 투자는 件數는 많고 金額은 小規模로, 國內產業構造 調整과 깊은 聯關이 있고 이에따라 주로 中小企業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일반적 효과인 輸出代替性과 補完性에 대하여 먼저 논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중국에의 직접투자 急增에 따라 나타나는 중국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現况을 韓國銀行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統計資料에 根據하여 논하고, 진출기업의 動機, 事業環境에 대한 評價 및 경영상의 險路點을 韓國貿易協會, 韓國輸出入銀行, 大韓貿易振興公社 등 支援機關의 事例 및 設問調查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土臺로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生產, 販賣, 人事 및 勞務管理 實態를 把握했으며, 이를 國內母企業의 收益性과 비교함으로서 중국진출의 影響을 논하였다. 尚後 對策에 있어서 政府와 支援機關 그리고 企業의 有機的인 協助體制의 摸索을 강조함으로서 본 軌道에 오른 한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效率性을 提高시키고자 했다.

---

## Analysis on Situations and Problems of Korean Small-Size Company's Direct Investments to Chinese Markets

Park, Dong-Rhyul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 <Abstract>

Once exports markets to overseas are opened, change of economic conditions induce direct investments. Most often large size company makes direct investments to North-American and European markets, because those investments usually cast a amount of money and target achievements of high technology.

However, investments to Chinese markets tend to be conducted by small-size company, because not a few of opportunities to investments are available and those investments usually do not need a huge amount of money.

Given these circumstans, this study first discussed direct investments to overseas as substitutes for exports.

Second, this study summarized current status of Korean small-size companies' direct investments to Chinese market, based on statistics provided by Bank of Korea and related government organizations

Third, this study summarized companies' motive for investments, evaluations of business environments and problems of business operations in overseas, based on case reports collected by Korea Foreign Trade Association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data collected by specially designed survey for this study. From these data, we also summarized hon small-size companies conduct functions of production, selling and employee management in China.

Forth, this study compared the companies' profitability of investments to Chinese market with that of investments to home market.

Finally, this study suggests more active cooperative systems between investment companies and related government organizations as an way to improve profitability of small-size company's direct investments to overseas.

## I. 머리말 : 韓中 經濟交流의 새로운 局面

1960년대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수출촉진에 의한 고도성장정책은 몇가지 문제점을 내包하고 있었으나 1980년대 중반까지 수출제일주의의 외형적 성장정책을 위주로 施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국내외식 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외환부족 등으로 엄격히 규제되어오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중반 소위 3저 현상에 바탕을 둔 경상수지 黑字示顯을 계기로 1987년부터 허가 기준 및 절차상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본격화 되었는데, 이 때를 전후하여 한중 간의 교류가 확대되어 우리 상품수출과 투자기업의 중국대륙 同時進出이라는 종전과 다른 행태의 경제현상이 나타난 것은 새로운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다.

즉 기존의 시장들은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시장으로 개척된 후, 장기간 우리 수출품의 수요대상국으로서 존재하다가 여전변화에 의하여 우·리의 투자대상국으로 변화 내지 발전했다고 여겨지나 중국은 그 時差가 품목에 따라 적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다른 해외시장도 그러하거니와 투자허가 건수에 비하여 투자액수는 매우 적은데 이는 중소기업의 투자횟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특히 중국시장에의 직접투자는 허가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거의 중소기업에 의한다고 볼 때 연구의 필요성은 증대하게 된다.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의 상호관계는 附加價值 創造의 장소와 시차문제로 인하여 임가공에 의한 전통적 수출축신을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생산확대, 소득 및 고용증대를 추진하여온 우리나라로서는 深度있게 연구하여야 할 과제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3번째 무역 상대국이면서 한국은 중국의 5번째 무역상내국임과 동시에 우리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직접투자)은 그 동기가 원화절상, 임금 및 지가 상승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경험부족과 정부지원의 미비 그리고 현지사정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한국의 중국에의 직접투자 급증에 따라 나타나는 중국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현황을 한국은행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통계치를 근거하여 논하고, 진출기업의 사업환경에 대한 평가와 경영상의 애로점을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支援機關의 事例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생산, 판매, 인사 및 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했으며, 이를 국내 모기업의 수익성과 비교함으로서 중국진출의 영향을 논하였다. 향후 대책에 있어서 정부·자원기관 그리고 기업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모색을 강조함으로서 본 궤도에 오른 한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효율성을 提高시키고자 한다.

## II. 輸出과 海外投資의 代替性과 補完性

수출정책의 한계와 그 대체정책이라 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정책간에는 국가마다 시대적 특성과 여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어왔고, 특히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는 1960년대 이후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sup>1)</sup>

일반적으로 직접투자에 대한 통상적인 이론적 模型에서와 같이 특정 시장의 규모나 시장점유율 등이 외생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직접투자에 의한 해외생산에 대한 결정은 해외시장에 대한 여러가지 접근방법, 즉 본국으로부터의 수출, 직접투자에 의한 현지생산 또는 라이센스에 의한 생산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귀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현지생산은 본국으로부터의 수출을 대체하게 되며 해외투자는 수출감소효과를 갖게 된다.

그러나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현지생산여부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해외직접투자로 수출이 증대되어 양자간에 補完的 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 즉 현지생산이 현지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킨다면, 그리고 또한 현지생산이 본국 모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등의 생산투입요소를 필요로 한다면, 시장점유율의 증가정도와 모기업으로부터의 수출이 증대될 수도 있는 것이다.<sup>2)</sup>

또한 현지생산이 단지 특정기업의 시장점유율 뿐만 아니라 제품자체의 전체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해외직접투자와 수출간의 보완성이 더욱 증대될 수 있다. 이것은 직접투자로

1) Magnus Blomstrom, Robert E Lipsey, and Ksenia Kulchycky, "U.S. and Swedish Direct Investment and Exports", Baldwin ed. 1988

Wakasugi, R., "Is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a Sub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Japan and the World Economy, 1994.

2) Eaton, J. and Tamura A, "Bilateralism and Regionalism in Japanese and U.S. Trade and Direct Foreign Investment Patterns", NBER Working Paper No 4785,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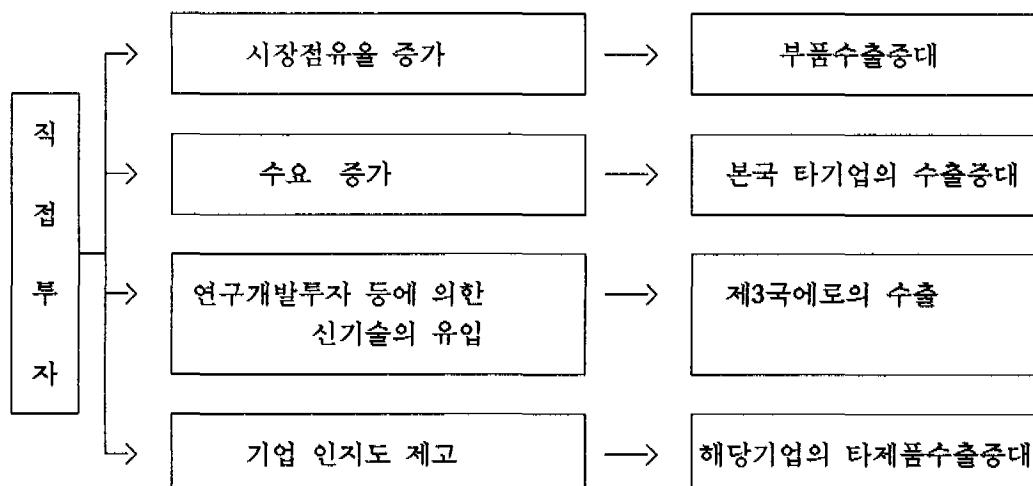
Edward M.Graham, "U.S. Direct Investment Abroad and Export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Some Empirical Results Based on Cross Sectional Analysis", Copyright IIT, 1995

현지마케팅이나 서비스 등 수출보완적 영업활동이 강화되거나 제품에 대한 認知度가 提高되어 그 수요가 증가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현지생산을 하는 기업의 모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본국의 타기업으로부터의 수출도 늘어 날 수 있다.

그밖에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기술선진국으로의 직접투자는 개발된 신기술이 본국으로 유입되어 제3국으로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고, 현대자동차의 해외투자와 현대컴퓨터의 수출과의 관계에서처럼 여러 산업분야에서 水平的으로 통합된 기업의 특정분야에서의 직접투자가 그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시켜 다른 분야의 제품수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sup>3)</sup>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해외직접투자는 반드시 수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요인에 의해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의 <圖 1-1>과 같다.<sup>4)</sup>

<圖1-1> 직 접 투 자 의 효 과



### III.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特徵

#### 3-1. 해외직접투자의 급증은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1968년 한국남방개발주식회사의 인도네시아 삼립개발투자가 그嚆矢이나 본격화 된 것은 상기한 대로 1986년 경상수지 흑자전환으로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深化되고 원화절상, 노사분규에 의한 임금상승, 지가를 비롯한 각종 비용상승 및 공

3) Jai-Won Ryou, "Korean Outward Direct Foreign Investment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Asia-Pacific".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n the Pacific Basin, held at Univ. of Calif., Berkeley, June 29-30, 1995.

4. 김준동, 글로벌화 시대에서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정책자료 94-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12 pp.27-32

김준동, 강인수, Outward FDI and Exports The Case of Korea and Japan, 1992, pp.12-21

해방지 문제등으로 수출여건이 점차 악화되자 輸出基地를 해외로 이전하기 위한 투자가 증가한데다가 최근 국제경제의 지역주의화와 GLOBAL화에 대응하여 가격 및 국제경쟁력을 유지 내지 높이기 위한 전략적 대안에서 나왔고 이러한 추세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 규제완화 내지 투자촉진정책에 기인한다.<sup>5)</sup>

<표3-1>에서 보는 바와같이 94년 연말 현재 투자잔액이 4,161건 765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건수의 86%, 액수의 91.8%) 86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표3-1>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총괄 단위 : 건수, 백만달러

	총 허가		총 투자		기 말 투자 잔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68 - 79	354	230	312	128	263	115
80 - 85	322	620	278	418	433	461
86 - 89	800	2,148	583	1,377	910	1,488
90 - 93	2,724	6,204	1,960	4,544	2,726	5,432
1990	515	1,611	338	955	1,226	2,298
1991	527	1,511	443	1,115	1,646	3,325
1992	632	1,210	497	1,218	2,109	4,422
1993	1,050	1,872	682	1,256	2,754	5,580
1994	1,949	3,722	1,476	1,317	4,161	7,648
1995(추정)	3,284	4,249	1,861	2,243	6,254	8,965

자료 : 한국은행 외환업무부, 해외부자통계연보(외환업무자료 95-B-5)에서 정리.

### 3-2 제조업 중심의 투자

<표3-2> 94년말 잔액기준에 의한 업종별 해외투자 현황 단위 : 건수, 백만달러

	광업	임업	수산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보관	무역업	기타	부동산	합계
건수	14 (0.07)	3	19 (1.0)	1,425 (73.11)	38 (1.9)	25	190 (9.7)	230	5	1,949
금액	255.9 (6.9)	4.2	12.9	2,187.9 (58.8)	87.9 (0.2)	58.5	605.1 (16.3)	373.5	136.7	3,722.7

자료 : 상계서에서 정리

5) 한국은행 조사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제도, 한국은행 사내조사자료, 1994.10.

상기<표3-2>에서 보는 바와같이 94년말 해외투자를 업종별로 볼 때 단연 製造業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기준 73.1%, 금액기준 58.8%) 이는 해외투자 초창기인 70년대 초까지는 임업이 주종을 이루었고, 절대액수는 미미하나 80년대의 광업부문의 급격한 비중상승에 비할 때 해외직접투자가 본격화된 80년대 후반의 정부의 정책과 국내외 여건은 세조업과 무역업의 진출로 보고 있는데 내용면에서 볼 때, 섬유 신발 조립금속 등 勞動集約的 산업이 개도국의 저임노동력 활용과 신진국에 대한 迂廻輸出基地 확보를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추진한데 기인했다고 보면, 그 주체는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의 투자가 활발하였음은 후술하겠다.<sup>6)</sup>

### 3-3 동남아 및 북미중심의 편중투자

<표3-3>에서와 같이 94년말 총해외직접투자 동계에 의하면 동남아 지역이 건수에서는 82.1%, 금액면에서는 4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고 북미지역이 9.3%와 24.4% 그리고 유럽지역이 금액면에서 2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3> 1994년말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 건수, 백만달러

	동남아	중 동	유 럽	북 미	중남미	아프리카	대양주	합 계
선 수	1,212 (82.1)	4	56	137 (9.3)	33	9	25	1,476
금 액	1,091,955 (46.5)	38,275	455,825 (19.4)	573,284 (24.4)	49,120	115,846	22,356	2,346,661

자료 : 상계서에서 정리

주 : ( )는 비중(%)을 의미

이러한 현상은 투자업종에서 기인하는데, 동남아지역이 섬유, 신발, 완구 등 경공업 위주의 小規模투자가 대부분인 반면 북미지역과 유럽지역의 경우 철강, 자동차, 가전제품을 중심으로한 자본집약적 산업과 尖端技術 習得을 위한 기업진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반영한다.

### 3-4. 중소규모 사업중심의 투자

<표3-4>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를 규모별로 보면 94년 8월말 현재 전체 투자건수의 76.1%인 2,750건이 100만달러 이하의 중소규모 투자로 매우 零細한 실정이며, 건당 평균 투자규모를 지역별로 보면 북미와 유럽이 각각 400만달러와 350만달러로 이 역시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습득책임을 반영하는데 비하여 투자가 가장旺盛한 동남아의 경우 110만 달러에 머물러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는 저임금을 겨냥하고 있다는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다.

6) 박태호, 나인강,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토의 자료 89-11, 한국개발연구원, 1989. 12. pp 46-56

&lt;표3-4&gt; 지역별 신당 평균 해외직접투자 현황(94년 8월말 잔액기준) 단위: 건수, 백만달러

	동남아	중동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대양주	합계
투자잔액(A)	2,578	73	2,459	234	755	228	210	6,537
건수(B)	2,392	33	621	207	217	42	102	3,614
A/B	1.1	2.2	4.0	1.1	3.5	5.4	2.1	1.8

자료 : 상계서에서 정리

주 : A/B : 평균투자잔액

한편, 투자지분별로는 50%이상의 投資持分을 항유하고 있는 건수가 전체 투자건수의 81.3%인 2,939건으로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100% 단독투자건수도 1,858건으로 전체 투자건수의 5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단독투자형태가 많은 것으로, 단순 임가공 형태의 세조업이 주류를 이루다는 점과 중소규모의 사업을 중심으로 단독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겠다.

아직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처음에는 중국기업 또는 現地法人과 合資形態로 시작되었으나 단독기업으로 전환한 경우가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바, 이는 비교적 적응이 빠르다는 점과 우리기업의 중국기업에 대한 신뢰도 부족과 자본주의 경험 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lt;표3-5&gt; 투자지분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84년 말 투자잔액 기준) 단위 : 건수, 백만달러

20%미만		20%-50%		50%		50%-100%		100%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8	140	597	753	353	607	728	1,256	1,858	3,799	3,614	6,537

자료 : 한국은행 조사1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제도” 1994.10,p.14

### 3-5. 투자대상국으로서의 중국시장 부상

한중 양국간 교역(무역과 직접투자)은 80년대 중반 이후 무역이 급증함과 함께 직접투자가 서서히 나타나더니 90년대에 들어 급격히 증가세를 보였다. 상술하면 <표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교정상화 이전에는 수입의 비중이 매우 커 무역수지가 큰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90년도부터 수출이 급증하면서 직접투자가 중소규모의 형태로 나타났다. 1992년 국교정상화와 무역협정(우대관세적용), 추자보장협정 체결 등에 힘입어 직접투자가 본격화됨과 동시에 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직접투자에 소요되는 설비 및 원부자재의 한국산 조달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밖에 한중간의 교역확대의 원인으로는 양국간 산업구조의 보완성, 중국경제의 급성장, 양국경협환경의 개선, 중국의 수입관세 인하 등을 들 수 있다.<sup>7)</sup>

7) 김승남, “2000년을 향한 중국과 한국의 경제 무역 협력방안 문제점과 대응”(단행본) 1993.5. pp.3-10

&lt;표3-6&gt;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과 직접투자 증가율 비교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수 출( 증 가 율)	수 입 ( 증 가 율)	무 역 수 지	직접투자 증가율	
				건 수	금 액
1985	40.3 (138.0)	478.8 (133.2)	-438.1		
1986	372.2 ( 76.4)	1,386.7 ( 60.1)	-1,014.5		
1989	437.4 ( 17.5)	1,704.5 ( 22.9)	-1,267.1	40.8	29.7
1990	584.9 ( 33.7)	2,268.1 ( 33.1)	-1,683.2	68.3	54.2
1991	1,002.5 ( 71.4)	3,440.5 ( 51.7)	-2,438.0	194.7	55.5
1992	2,653.6 (164.7)	3,724.9 ( 8.3)	-1,071.3	140.2	161.9
1993	5,151.0 ( 94.1)	3,928.7( 5.5)	1,222.3	133.8	180.5
1994	6,203.0 ( 20.4)	5,462.8 ( 39.0)	740.2	69.5	31.7
95. 1-7	4,982.0 ( 45.9)	4,167.1 (38.9)	814.9	16.8	65.6

자료 : KOTIS, 한국무역협회, 대중국 교역 및 투자안내, 1995.5. pp. 354-356

주 : 직접투자는 허가기준

최근 동향을 살피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허가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표3-7>에서 보는 바와같이 95년 1월부터 10월사이 허가규모는 전년에 비해 390건 감소하였으나 58.9백만달러 증가하여 투자규모가 大型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북미 지역의 자동차 설비투자에 기인한다. 또 10월중 중소기업에 대한 허가는 63건 52.8백만 달러로 전체건수의 72.4%(금액기준 6.7%)를 차지하여 다소 감소추세이나 이 역시 북미(엘지전자) 및 유럽지역(대우자동차)에의 대기업투자가 본격화함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표에는 생략되었으나 업종별 허가동향은 95년 10월 말 잔존허가를 기준으로 볼 때 제조업이 4,035건(67.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무역업 960건(16.0%), 건설업 157건(2.6%) 순이다.

지역별 동기간동안(95년 10월 중)의 허가 동향을 보면 저임금과 적극적인 외국자본유치 정책에 힘입어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가 69건(241.3백만달러)으로 전체의 79.3%(금액기준 30.5%)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에 대한 투자는 活潑한 持續을 보여 전체 투자건수의 54.0%(47건)에 이르지만 금액으로는 전체의 55%에 불과해 주로 중소기업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 졌음을 반영한다.

&lt;표3-7&gt; 허 가 실 적 현 황 단위 : 건수,백만달러

		1 9 9 4 1 - 10월 중	1 9 9 5 10월 중	1 - 10월 중	전년 동기비 증 감(-)	95년 10월 말 잔 존 허 가
허	건수	1,629	87	1,239	-390[-23.9]	6,006

가 (A)	금액	2,895.0	790.5	3,478.9	-583.9[20.2]	12,768.0
중소 기업 (B)	건수	1,338	63	899	-439[-32.8]	4,159
	금액	730.7	52.8	808.8	77[10.6]	2,735.2
B/A(%)	82.1 25.2	72.4 6.7	72.6 23.2			21.4

자료 : 중소기업진흥 사내자료, 1995. 12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比重을 알기 위해서 <표3-8>에서 보는 바와같이 연도별 투자비중을 전세계, 동남아 및 중국간에 비교하여 보자.

<표3-8> 연도별 투자비중의 비교 단위 : 건수, 천달러

지역	연중	1991		1992		1993		1994		94년말 진존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 수	금 액
전세계	허 가	539	1,605,634	632	1,210,415	1050	1,888,529	1949	3,722,726	4161	7,648,792
	투자	453	1,125,364	500	1,255,047	682	1,317,421	1467	2,346,661		
동남아	허가	339	649,637	481	586,202	861	953,870	629	1,826,808		
	투자	272	431,257	360	555,701	544	546,168	1212	1,091,955		
중국	허가	112	84,721	269	221,886	630	639,397	1067	824,772	1985	1,707,648
	투자	69	42,468	171	140,572	377	271,696	836	640,806	1477	1,104,924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화사업부 사내자료, 1995.12

허가건수를 기준으로 전세계에 대한 총투자허가는 1991년 539건에 비해 1994년에는 3.6배(금액으로는 2.3배)증가하였고 실제투자는 건수와 금액에서 각각 3.2배와 2.1배 증가하였다.

그런데 중국에의 비중을 보면 투자허가는 1991년 112건에 비해 1994년에는 9.5배(금액으로는 9.8배)증가하였고 실제투자는 건수와 금액에서 각각 121배와 15.2배 증가하였다. 특히 동남아에의 투자건수와 금액면에서 중국의 비중이 대략 절반을 웃돌고 있으며 1994년의 경우 투자건수에 있어서는 69%,금액으로는 59%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금액과 건수 모두 50%를 상회하고 있는데 특히 건수에 있어서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전당 투자규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중소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같이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특징은 業種別로는 製造業에, 規模面에서는 중소기업에, 지역별로는 동남아 특히 중국에 편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문제는 중국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로서 그 내용과 수준의 把握이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 IV. 우리나라 中小企業의 中國投資 現況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초기단계(1985년-1988년)과정에서는 제3국(주로 홍콩)을 통한 迂迴投資였기에 合資投資形式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점차 수교이후 그 비중이 감소하였고, 1991년 말의 무역협정 체결, 92년 5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을 계기로 재반여건(직항공로 개설, 출입국 및 장기체류 허가의 간소화 등)이 호전됨에 따라 1990년대에 들어 크게 증폭되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중국이 70년대말 개혁 개방정책을 도입한 이래 기본적으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誘致하고 있다는 점과 올림픽 이후의 한국의 위상 제고 및 한국의 국내외적 여건 등이 상호 작용하였다.

전술한 대로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중국에의 직접투자 비중은 1994년 허가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55%이며, 허가금액으로 볼 때는 그 비중이 22%이다.(<표3-8> 참조)이는 중국진출의 주역이 중소기업인바, 이를 더 구체적으로 보자.

<표4-1>과 <표4-2>는 연도별 우리나라 기업전체의 중국투자 현황 및 중소기업의 투자 현황이다. 1994년 말 투자잔액을 기준으로 볼 때 총 1,477건중 중소기업이 84.3%인 1,245 건을 차지하고 있고 금액으로 보면 1,104,924천 달러중 79%인 876,582천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건당 투자액은 704,082달러로 나타나 매우 零細한 편이다.(전세계 건당 평균은 189만 달러)

<표4-1> 연도별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에의 투자현황 단위:( )는 건수, 천달러

연도	총 허가	실효 등	순 허가	총 투자	청산 등	순 투자	투자잔액
1988	3,400 (2)		3,400 (2)				
1989	9,770 (12)	450 (0)	9,320 (12)	6,360 (7)		6,360 (7)	6,360 (7)
1990	54,493 (38)	2,832 (2)	51,661 (36)	15,974 (23)	212	15,762 (23)	22,122 (30)
1991	84,721 (112)	3,368 (1)	81,353 (111)	42,468 (69)	0	42,468 (69)	64,590 (99)
1992	221,886 (348)	5,203 (4)	216,683 (265)	141,161 (171)	638	140,523 (171)	205,113 (270)
1993	622,388 (629)	23,900 (13)	597,488 (516)	262,370 (377)	2,327 (1)	260,043 (376)	465,156 (646)
1994	824,772 (1,067)			640,806 (836)			1,104,924 (1,477)

합 계	1,821,430 (3,191)	36,753 (20)	959,905 (1,042)	1,109,139 (1,483)	3,177 (1)	465,156 (646)	
-----	----------------------	----------------	--------------------	----------------------	--------------	------------------	--

자료 : 한국 중소기업 진흥공단 국제화사업부 사내자료 1995.12.

韓國銀行 외환업무부, 해외투자 통계연보, 외환업무자료 95-B-5, 한국은행, 1995.

<표4-2> 연도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중국에의 투자현황 단위( )는 건수, 천달러

연도	총 허가	실 효 등	순 허가	총 투자	청 산 등	순 투자	투자잔액
1988							
1989	5,470 (9)	450 (0)	5,020 (9)	960 (3)		960 (3)	960 (3)
1990	17,749 (27)	320 (1)	17,429 (26)	8,320 (15)		8,320 (15)	9,280 (18)
1991	61,476 (103)	3,265 (1)	58,211 (102)	28,611 (62)		28,611 (62)	37,891 (80)
1992	154,998 (247)	5,229 (3)	149,769 (244)	84,033 (155)	638 (0)	83,395 (155)	121,286 (235)
1993	346,122 (365)	8,363 (12)	337,759 (553)	188,687 (336)	221 (1)	188,466 (335)	309,753 (570)
1994	592,788 (724)			486,982 (692)			876,582 (1,245)
합 계	1,178,603 (1,675)	17,627 (17)	568,188 (934)	797,593 (1,263)	859 (1)	309,752 (570)	

자료 : 한국 중소기업 진흥공단 국제화사업부 사내자료 1995.12.

韓國銀行 외환업무부, 해외투자 통계연보, 외환업무자료 95-B-5, 한국은행, 1995.

&lt;표4-3&gt; 업종별 대중국 직접투자 현황(94년 말 잔존기준)

단위:건수, 천달러

	광업	임업	수산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보관	무역업	기타	부동산	합계
건 수	11 (12)	2 (2)	20 (27)	1,291 (1,716)	2 (3)	11 (18)	19 (31)	112 165	3 3	1,477 (1,985)
금 액	4,5879 (6,117)	325 714	4,807 (8,101)	966,079 (1,499,381)	12,835 (25,182)	8,531 (28,504)	3,750 (10,922)	54,248 106,203	5,812 5,812	104,924 (1,707,648)

주: ( )안의 숫자는 허가건수 및 허가금액

자료: 해외투자통계연보, 한국은행 외환업무부, 1995

업종별 직접투자 현황은 상기 <표4-3>에서와 같이 1994년 말 잔존 허가기준으로 볼 때, 건수면에서 제조업이 1,985건 중 86%인 1,716건을 차지하고 있고 금액면에서도 88%로 단연 先頭를 기록하고 있다.

내용면에서 볼 때 <표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 6월 말 누계로 볼 때 총 1378건 (금액으로는 1,194,379천불) 중 섬유와 의류(건수로는 24%, 금액으로는 18%), 조립금속(13%, 22%), 신발과 가죽(10.3%, 10.7%), 봉제완구, 잡제품의 순으로 중소기업형 노동집약적 업종에 집중되어 國內 產業構造調整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부품, 전선, 콘테이너 등 장치산업에 대한 투자가 漸增하고 있는 것으로 각종 사례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lt;표4-4&gt; 제조업 내용별 직접투자 추이

단위: 허가건수, ( )는 금액 천달러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6	누 계
음, 시료품	1(3000)	4(1513)	5(3039)	13(5377)	47(16941)	28(14142)	98(44112)
섬유, 의류	4(990)	5(6254)	33(13050)	73(54075)	122(74088)	90(63507)	327(211964)
신발, 가죽	1(1650)	3 (6083)	12(13617)	24(16246)	59(64779)	43(25269)	142(127644)
목재, 가구		1 (200)	3(863)	13(3402)	25(9886)	20(9076)	62(23427)
종이, 인쇄			2(600)	3(1325)	10(4603)	10(7724)	25(14252)
석유, 화학	1(1250)	3 (7558)		7(5246)	55(56198)	45(29916)	111(100168)
비금속광물	2(1033)	1 (1125)	2(364)	8(12432)	19(114131)	22(18415)	54(147500)
1차금속			1(1500)	6(5244)	16(8174)	23(16206)	46(31124)
조립금속	1(2800)	6(14920)	13(26251)	30(36929)	75(111392)	51(66116)	176(258408)
기계, 장비		1 (107)	3(3808)	9(7469)	22(19945)	24(12638)	59(43967)
기타 제조	4(2490)	11(16160)	32(15313)	70(483632)	119(88006)	42(21482)	278(191813)
총 제조업							

허 가 금 액	14 13213	35 53920	106 78405	256 196207	569 568143	398 284491	1378 1194379
------------	-------------	-------------	--------------	---------------	---------------	---------------	-----------------

자료 : 상계서 pp.68-70

다음으로 중국내 투자지역 분포를 1994년 6월말 현재 허가기준 누계를 기준으로 살펴보자.

<표4-5>에서 보는 바와같이 총 1,549건(1,327,618천달러)중 47%인 727건(금액은 771,443천달러로 58%)이 渤海灣 地域(山東省, 천진시, 북경시 및 河北省)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산동성에만 절반이상(416건,472,305천달러)이 투자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그곳 지방정부 기구들의 적극적인 한국기업 투자유지정책, 기후와 지리적인 인접성, 금융지원등의 용이성과 폐리항로 개설 등이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표4-5> 지역별,연도별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 단위 : 허가기준 건수, 천달러

전체 건수 허가	1989까지	1990	1991	1992	1993	1994. 1-6	누계
	14 13321	38 54480	112 84694	269 221946	629 622403	487 330882	1549 1327618
발해만 지역 건수 금액	8 6493	14 54480	56 40149	139 125692	291 400461	219 400461	727 771443
동북지역 건수 금액	4 2470	21 19120	44 34653	99 56727	245 139410	193 96143	606 348514
화중지역 건수 금액		1 900	6 6367	15 14999	52 48979	38 50260	112 121505
화남지역 건수 금액	2 4250	2 1740	5 3455	14 24233	29 28324	30 16376	82 78378
내륙지역 건수 금액			1 70	2 295	12 5229	7 2184	22 7778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외환업무자료95-B-5, 1995)에서 발췌 정리.

한국무역협회, “중국투자우리기업의 경영실태와 성과”1995.3, p.28

로 본다. 북경시(106건,81,417천달러)와 천진시(163건,187,040천달러)는 금융기관이 많고 연관기업이 많은 이점이 있으나 용지 구입과 인건비 면에서의 비용관계로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東北地域(요녕성, 길림성 및 연변 조선족 자치주, 흑룡강성)은 606건,348,514천 달러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그 증가추세도 타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데 이는 언어장애가 없고

보통 중국인에 비해 근면성이 높아 생산성면에서 이점이 있는 朝鮮族 교포의 집단거주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녕성(심양시)은 중공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원자재조달과 항만운송이 용이해 한국기업들의 호의적 반응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밖에 華中地域(강소성, 상해시, 안휘성, 절강성)과 華南地域(광동성, 복건성, 해남성)의 경우는 대체로 중소기업 보다는 소수의 대기업위주의 투자가 이루어 셨고, 상해시를 제외하고는 그 절대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매우 약하고 업종에서도 타지역과 달리 제조업보다는 관광, 호텔, 요식업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기 밸류만지역과 동북지역과 지리적으로나 조선족 거주분포 및 국내산업과 연관성을 떼 그 원인은 자명해진다.

## V. 對中國 投資進出 動機

전술한 바와같이 만성적 국제수지적자로 인한 정부의 외화유출 억제책과 기업의 해외투자 危險認識으로 인하여 1980년대 중반까지 미비한 실적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외적 여건의 급변화로 급성장한지 지난 10여년동안 학계와 각 연구소별로 해외투자에 대한 다각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중국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인 요인 등 비경제적 요인과 원자재조달, 인건비 등 경제적요인에서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의 투자의욕을 불러 일으켜왔고 앞으로도 漸增될 전망이다.

중국은 약 반세기 가까운 기간을 우리와 이진적인 사회주의 경제를 시행하여 왔고 넓은 대륙의 특성과 자본주의체제의 미발달로 인한 교통, 통신, 금융, 정보전달 등의 어려움, 그리고 기업내 현실의 외부노출을 꺼리는 중소기업의 體質上 그들의 험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제시를 하려는 각 연구단체 혹은 연구자의 연구의욕에 한계를 주어왔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1995년 한국무역협회는 중국진출 우리기업 1,042개(1993년말 현재) 가운데 實際 操業中이며 국내 母企業의 주소파악이 가능한 718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동기, 애로사항 등을 설문조사 하였다.<sup>8)</sup> 또한 수출입은행은 40여개의 기업을 사례조사하였고<sup>9)</sup> 그밖에 대류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서도 실증조사를 완료했거나 진행중에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연구물들을 종합 정리하여 중국진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투자진출 동기 및 애로점을 논하기로 한다.

### 5-1. 일반적인 해외투자진출의 동기와 중국진출의 동기

원론적으로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는 現地市場開拓과 生產費用節減에 있다.<sup>10)</sup>

실제 중국을 포함한 전체 해외투자 기업의 사례조사에서도 “생산코스트 절감”(39.9%)과 “시장개척”(31.2%) 및 “본사 글로벌 정책의 一環”(15.6%)이 주요동기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진출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투자동기중 생산효율성추구요인이

8. 한국무역협회, 중국투자 우리기업의 경영실태와 성과, 국제 95-01, 1995.3.

9. 韓國輸出入銀行, 해외직접투자경험사례, 해외투자연구소 조사자료 94-2, 1994.12  
韓國輸出入銀行, 해외직접투자경험사례, 해외투자연구소 조사자료 96-1, 1996.1.

10. 정구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전략, 중소기업 특별연구 93-84,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  
터, 1993.12. pp.85-91

74.4%인데 반하여 시장개척요인은 25.3%에 불과하였다. 이는 북미, 유럽지역에의 투자동기(시장개척, 협단기술 습득, 기업 이미지 세고)와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원인은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데 있다 구체적인 동기에 있어서 “임금이 低廉”을 선택한 업체가 26.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리석인 인접”과 “현지시장규모의 有望”이 각각 19.2%, 17.3%로 국내산업구조 조정에서 오는 단기적 안목의 경향이 짙다. 다만 현지시장성향이 갈할 수 밖에 없는 비제조업과 세조업중에서도 현지시향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음식료품,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등의 업종은 시장개척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2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동기

대중국진출 동기를 기업규모별로 세분하여 보면, 총 중국진출기업의 85%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효율성 傾向이 상하나, 대기업 및 재벌기업군으로 간수록 시장개척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투자규모가 키질수록 시장개척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금력과 마아케팅력에서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은 중국을 생산기지로만 활용하려는 短期 勝負의 성향이 강하나, 자금력과 마아케팅력을 갖춘 대기업과 재벌기업군은 우선 단기적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현시시장 개척도 念頭에 두는 투자자세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 5-3. 地域偏重의 동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발해만 지역(산동성, 천진시, 북경시 및 하북성)에의 진출기업의 농기는 역시 생산효율성 추구경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지역(요녕성, 긴림성 및 연변조선족 자치주, 흑룡강성) 역시 생산성 추구 및 勞動質의 優秀가 지역진출 동기로 나타났다.<sup>11)</sup>

省市別로는 특히,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해 있어 수송비용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알리지고 있는 산동성, 천진시와 하북성에서 이러한 경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 지역의 원자재 해외조달비중과 생산제품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들 지역에 투자진출한 업체의 대부분이 한국이나 제3국에서 原副資材를 수입해다가 생산하여 제3국이나 한국으로 수출하는 수출가공형 생산기지를 確保하기 위해 투자진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5-4. 투자진출의 의사결정과정

중국에 투자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결정 의사과정에서 보면 역시 중소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體系的이고 科學的인 분석보다는 최고 경영자의 독자적인 判斷에 의거한다는 결론이 나온다.(63.6%)

다면 음식료품, 1차금속, 기계장비 등 비교적 시장개척 추구성향이 강한 업종일수록 “중국 현지기업의 제의”를 받고 결정한 경우가 많으며, 투자규모가 클수록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사결정과정 및 經營諮詢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up>11</sup> 韓國輸出入銀行, 中國의 省別 投資環境, 해외투사연구소 투자가이드, 94-2, 1994.3 pp.27-32

## VI. 中國 現地法人의 事業環境에 對한 評價와 險路事項

### 6-1 입지조건에 대한 평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체의 약 70%가 현 입지조건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못한 약 30%는 주로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는 항구와의 거리가 멀어 수송이 곤란한 점, 노로 철도 등 내륙수송시설이 부족한 점, 전력 공급이 불규칙하고 부족한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그런데 특기할 사항은 기존 중국 진출업체들이 심각한 중국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을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으로 효율성있게客服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력부족은 일요일代替勤務, 자가발전시설의 확보 등으로 극복하고 있으며, 내륙수송시설의 부족은 자체 수송수단확보, 철도 등 담당 관리와의 돈독한 인간관계 형성등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동북지역에서는 지역 군부대의 트력을 활용하는 기업도 있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의 만족도가 높고, 특히 석유화학, 비금속 광물 등의 업종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음식료품, 기타제조 등의 업종은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지역적으로는 전 지역이 비교적 비슷한 만족률을 보였으며, 省市別로는 상해시와 길림성, 요녕성 등지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흑룡강성의 만족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 6-2 경쟁력에 대한 평가

먼저 임금수준을 살펴보자.

중국 현지법인의 임금수준은 全產業 평균기준으로 사무직이 월 658원(한화 약 65,000원)으로 한국의 12.6%로 평가 되었으며, 숙련공이 월 534원(한국의 10.4%), 비숙련공이 월 364원(한국의 9.4%), 기타 직원이 월 384원(한국의 9.7%)로 각각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名目賃金 水準이고 실제로는 명목임금의 약 100%에 달하는 노동자를 위한 각종 복지기금이 이에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종별로는 비제조업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장비업종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화남지역 가장 높게, 동북지역이 가장 낮게 평가 되었으며, 성시별로는 북경시가 가장 높게, 흑룡강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品質水準을 살펴보면, 중국 현지법인 생산품의 품질수준은 한국산의 66.3%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대부분의 중국 현지법인들이 中低價品을 생산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이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업종별로는 비제조업과 제조업중에서 인쇄업분야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신발과 가죽, 목재가구, 1차금속, 기계장비 등의 업종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전지역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省市別로는 요녕성, 천강성, 복건성 등지의 품질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지역에 음식료품, 섬유의복, 기타제조 등 비교적 단순한 업종의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진출해 있으며, 우리기업의 진출에 앞서 대만, 홍콩, 일본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 비교적 숙련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생산성수준으로 보면 한국 同種業界의 56.1%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工程이 비교적 단순한 섬유의복, 비금속광물, 기타제조 등의 업종만이 보통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나머지 업종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현지 중국인 근로자의 타성에 젖은 작업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북지역과 화중, 화남지역은 보통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해만 지역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시별로는 특히 산동성, 천진시, 북경시 등지의 생산성이 낮게 나타난 반면, 요녕성, 강소경, 절강성, 복건성 등지의 생산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工場賃借 및 維持費用水準은 한국 농종업계의 45.6%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동북지역이 가장 높고 화중지역이 가장 낮으며, 성시별로는 흑룡강성과 길림성이 가장 낮고 상해시와 북경시가 가장 높았다.

그밖에 관리비 등 기타 비용수준은 예상보다 높아 한국의 63.1%로 평가되었는데, 특히 화남지역은 90%를 유팔해 한국내 수준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 6-3. 중국진출 기업의 투자시 애로사항과 저용

중국에의 투자진출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중국의 각종 세도, 법률, 투자환경의 자본주의와의 異質性, 관련업체에 대한 繁密한 정보부족 등으로, 1980년대 중반 처음 투자진출을 할 때에 하여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특히 관계문서나 세약서보다는 협상과 관습을 통하여 해결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 기업의 협상력에 따라 중국측 기관들(전기, 통신, 금융, 노무, 세관 등)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의 종류가 양과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현지 정부 주요인사 및 기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이 關係構築의 실패가 사업실패로 귀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시-농촌간의 인구이동을 제약하는 제도, 일부 지방관리들의 현지주민 채용의 강요와 청탁, 숙련 노동자의 이동제한 등에 기인하여 수련노동자 확보의 곤란과 임금상승, 나쁜 노동규율(특히 학자 파트너가 기존 종업원을 채용한 경우)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진출초기에 제기되었던 종업원 해고에 대한 제도적 제약의 문제는 현재 심각한 상황이 아니며, 일부 지역에서는 도리어 한국투사기업들이 집중됨에 따라 관리와 기술인원 및 수련공의 스카우트 등 이를 바탕으로 경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입지조건에 대한 평가에서도 언급되었으나 전기, 운송시설 등 인프라의 未備, 원자재 저기조달 등의 문제도 지역과 사업 성격에 따라 심각한 隘路가 되고 있다.

기존 중국진출 업체들은 이와같은 어려움을 중국측과의 인간관계 강화, 지역의 실질적 유지에 대한 정보 입수, 보비요원 고용, 앞서 진출한 국내외 기업체로부터의 경험사례 참조 및 정보정리를 통한 합리적 대책 수립 등을 통하여 잘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기업 이전의 일본, 홍콩, 대만 기업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VII. 中國進出 中小企業의 經營實態와 成果分析

과거 10년간 중국에 직접투자를 통하여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실태와 성과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의 財務諸表와 損益計算書 등 관계된 회계정보가 필요하나 중국시장이 매우 광활하고 기업내부의 제 상황의 공개를 꺼리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는 아직 불가능하고, 지금 까지 시행된 사례조사와 설문조사 기타 관련 연구물에 의거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 7-1. 생산활동 실태분석

무역협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투자진출한 우리 기업중 41.6%가 한국신新設備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모기업의 中古設備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31.4%에 달해, 중국에의 직접투자가 우리나라 자본제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직접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제3국 신설비와 합자선의 기존설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각각 12.5%와 11.4%로 나타났는데 제3국산은 60%이상이 일본산인 것으로 조사되어 중국에의 투자확대가 한일간의 무역역조에는 단기적으로 부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생산품목으로는 현재 母企業에서 생산중인 품목(39.6%로 주로 섬유의복, 복제가구 등)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모기업에서 생산하였거나 현지법인 가동이후 모기업 생산을 중단한 품목(32.3%로 주로 종이인쇄)의 비중이 커 현지법인 생산품목의 국내 모기업 연관성이 壓倒的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논한대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이에따라 70% 이상의 기업이 생산효율성 추구를 목적으로 중국에 진출하였음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원자재 調達문제를 보면, 57.3%를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33%는 중국현지에서 구입하거나 조달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 목재가구,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등의 업종은 특성상 현지시장으로부터의 구입비중이 크며, 지역별로는 항만시설 등 인프라 문제가 심은 발해반지역, 화중지역, 화남지역 등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70%에 이르나, 동부지역과 내륙쪽은 현지구입과 수입이 절반씩 占有하고 있다.

한가지 발전적인 현상은 중국내 원자재 적정공급이 여전으로 인하여 원활하지 못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인하여, 우리기업들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확대, 연간 필요량充分備蓄, 부품공장 별도운영, 자체 운송장비 확보 등을 통하여 현지적응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 7-2 판매활동 실태분석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매출액중 한국으로의 수출이 23.5%, 제3국으로의 수출이 48.9%로 수출비중이 72.4%에 달하여, 중국 내수판매의 비중은 27.6%에 불과하였다.

업종별로는 특히 代替生產基地 確保를 위한 중국진출의 성격이 강한 섬유의류, 신발가죽, 기타제조업종의 제3국 수출비중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북경시, 질강성, 길림성 등지는 內需販賣의 비중이 높은 반면, 화남지역은 제3국 수출비중이, 흑룡강성은 한국으로의 수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7-3. 인사 및 노무관리 실태분석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그곳 근로자들의 안인하고 惰性에 젖은 작업태도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잦은 임금 인상요구, 근로자의 무책임하고 잦은 移職, 언어장벽 등의 문제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선족 교포 등 현지인을 통한 간접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성과급제도와 모범사원의 국내 모기업 연수제도 등의 다양한 動機誘發策을 쓰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지출 기업중 14.3%가 노사분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규모 독자기업의 노사분규 경험율이 높았다. 노사분규 발생의 원인으로는 임금, 작업시간 등의 근로조

건, 기업내부의 조업규칙 등에 관한 불만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신발가죽, 목재가구 등의 업종에서 노사분규가 심해 소위 국내의 3D기피 현상이 중국에서도再现된다고 볼수 있다.

지역별로는 화중지역과 화남지역의 노사분규가 심한 반면, 동북지역은 매우 낮았다. 省市별로는 개방이 먼저되어 중국 노동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진 광동성이 가장 컸으며, 우리 기업의 진출이 많은 천진시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요녕성, 길림성 등지에서의 노사분규는 비교적 적었다.

#### 7-4. 경영성과의 분석

이상에서 분석한 여러가지 실태와 그로부터 派生된 多樣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진출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성과를 묻는 조사에서 만족도의 평균이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기업들이 중국에의 투자진출을 통한 경영성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업종별로는 비세조업보다는 제조업의 만족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제조업중에서도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조립금속, 기계장비, 기타제조 등의 업종에서는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음식료품, 목재가구, 종이인쇄, 1차금속 등의 업종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全地域이 비슷한 가운데, 화중지역과 화남지역이 비교적 높은 반면, 발해만 지역은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이는 화중과 화남지역의 景氣 활황에 起因하며, 발해만지역은 낮은 노동생산성이 그 원인일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화중과 화남지역은 투자동기의 달성여부와 수익성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높게 조사되었으나, 성장성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동북지역은 투자동기 달성여부와 수익성에 대한 평가는 낮게 나타났으나, 성장성에 대한 평가는 상대히 높았다.

이는 동북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은 장래의 南北經濟協力의 可能性, 러시아 연해주와의 교역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미래의 발전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반면, 화중과 화남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은 최근의 지역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당초의 투자목적은 어느정도 달성했으나, 토지임대료와 임금이 급등하고, 대만, 홍콩, 일본기업들과의 경쟁이 極甚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미래의 성과를 낙관할 수 없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법인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내부 변수들과 경영성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母企業의 規模, 현지법인의 원자재 해외조달비중 생산품목의 모기업 관련도, 제품의 수출비중, 현지법인의 現地化 程度, 본사 및 현지 파트너와의 관계 등은 현지법인의 경영성과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지법인의 지분비율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를 분석하여 결론적으로 논하면, 현지법인의 경영성과는 국내 모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현지법인의 원자재 해외조달비중, 생산제품의 모기업 관련도, 제품수출의 비중, 현지법인의 현지화 정도, 본사 및 중국측 파트너와의 관계만족도 등이 클수록 경영성과가 良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7-5. 국내 모기업과의 수익성 비교 및 그 영향

중국진출 기업의 수익성은 한국 同種業界의 평균의 96%로 평가되어 한국과 비슷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97%로 한국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제조업종은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중 식유화학, 기타제조 등의 업종은 한국동종업계비 110% 이상의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반면, 음식료품, 목재가구, 1차금속 등의 업종은 90%미만의 부진한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별로는 화남지역만이 110%이상의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성시별로는 상해시, 절강성, 광동성 등은 110%내외의 호조를 보였으나, 북경시, 흑룡강성 등은 90%미만의 부진을 나타냈다.

중국에의 투자진출이후 국내母企業 주요 경영지표의 변화를 보면, 수출액과 대중국 수출입액은 조금 증가한 반면, 매출액 경상이익 등 여타항목은 거의 불변인 것으로 평가되어,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대중국 투자신출 증가에 따른 국내산업의 空洞化 즉 逆效果보다는 교역증가 즉 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중국 현지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와 장래의 높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로 향후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가 기존 투자업체 가운데 과반수를 넘고 있다.

업종별로는 최근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섬유의류, 기타제조 등의 업종은 현상유지를 계획하는 업체가 더 많은 반면, 現地內需가 急激히 확대되고 수출 또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신발가죽,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등의 업종은 대부분의 진출기업이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발해만 지역과 동북지역의 업체들은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으나, 기타 지역은 현상유지를 희망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 VIII. 向後 對應戰略

한국경제의 급성장 裏面에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시행, 지원기관의 적극적 지원 그리고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를들면 1995년 수출1,000억불에 到達하기까지 정부의 끊임없는 法的, 稅制的 행정지원이 있었고 KOTRA, 무역협회, 한국개발연구원 등 垂下 支援機關의 실무적 지도가 있었으며, 기업인과 국민 한사람까지 至大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수출의 시대에서 進一步하여 적극적인 해외직접투자시대를 접하면서도 정부, 산하 지원기관 그리고 해당기업 모두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하되 종전보다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분석하에 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8-1. 정부의 정책운용상의 행정 및 통상지원 강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중국에의 직접투자는 물론 향후 전개될 모든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효율적 확대와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 정부가 하여야 할 과제는 크게 둘로 나누어 대내적으로 법적, 금융지원 및 조세차원 등의 제도적인 면에서의 합리적인 개혁과 대외적으로는 투자상대국을 대상으로 하는 諸般 정부의 역할이 그것이다.<sup>12)</sup>

먼저 대내적인 정책운용상의 과제를 이상에서 상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의 중국진출 확대를 위하여 논하여 보면,

첫째, 조세, 금융정책상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제반 절차가 보다 簡素化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부 등이 정보화, 세계화에 병행한 정보서비스를 보다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有機的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의 중앙정부 이외에 상당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省市別 지방정부와의 투자 및 경제협력 등 관계증진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각 지방정부와의 협력 창구를 設置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기업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경영 및 행정업무를 위한 영사관의 중실이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중국측 파트너와의 분쟁이 있을 경우 또는 투자확대를 위한 외화사용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 교통수단이 미비한 대륙에서 나타나는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 노무자의 土氣振作과 생산성 향상 및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 연수프로그램이 기업마다 계획되고 있는바, 이 과정에서의 입국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의견이 매우 분분한다. 간소화는 그만큼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킨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주의 체제가 脫皮되지 않아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한 상태에서 중국의 금융기관과 운송기관에게 제반 금융 및 운송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다만 이러한 기능의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 지도록, 즉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운송회사의 중국진출에 특히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는 진출하는 금융 및 운송회사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여타 모든 기업의 효율성을 提高시키는 정책일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의 대외적인 과제를 논하여 보자.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의 많은 부분이 한국 국내적인 지원정책만으로 해결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중소기업 단독적으로 중국의 관련 법규와 맞설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通商外交를 통하여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어느정도 장시간이 소요될 사항이고 비단 한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므로 대만, 일본 등 관계된 국가와도 협력해야 할 사항이나 이는 분명 정부의 所關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 애로사항과 시정 요망사항을 열거하여 보면,

첫째, 중국의 투자관련 법규 및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정부차원의 강력한 통상외교에 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의 제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히 이루어 지도록 誘導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공산당의 官僚主義가 대부분의 지방정부에 남아있어 현지사정을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처음 진출하는 기업일수록 중국의 단계적 심사제도에 困辱을 치르고 있다.

셋째, 정부는 중국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함은 물론, 한국 투자업체들이 한국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의 진출허가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넷째, 규정없는 準租稅 부과의 금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과금의 표준화가 시행되도록 정부차원의 투자협정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준조세 역시 자본주의의 미발달과 관료주의의 폐쇄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북경시와 상해시의 경우는 달한 경향이 있으나, 지방관료의 자치권이 큰 지역일수록 투자기업의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12. 안동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분석과 전략적 대안”, 한국기업의 국제경영전략, 법문사, 1995.1. pp. 193-226

다섯째, 중국내수시장 진출에 대한 제한의 철폐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역시 뚜렷한 법도 없고 중국측이 우리기업에게 투자유치를 권할 때에는 대부분 없던 事項이거나, 심지어 내수시장 진출을 약속하고도 이를 조세를 통해 억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지고 있다.

여섯째,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緩和 내지 撤廢를 줄기차게 요구하여야 한다.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22%로 선진국 평균 47%는 물론 개도국 평균 12-15%보다 훨씬 높다. 특히 한국산 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完製品의 경우 투자기업의 업무용인데도 불구하고 30 내지 130%의 과세를 요구하는바, 이는 투자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뿐이다. 또한 설비 및 원 부자재의 통관에 걸리는 시간때문에 시장성을 잃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중국정부 및 지방정부의 외자기업 차별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심지어 전기, 전화, 수도 등 공공요금에까지 50%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差別待遇를 시정하도록 상력 요청하고, 여의치 않으면 상호주의 원칙하에 한국진출 중국기업에게 차별대우 할 것을 천명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분쟁해결 기구의 설립을 요청하여야 한다.

물론 한중간에는 商事仲裁協定이締結되어 있으나, 우리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시간과 비용상 실질적인 보호가 없다시피 되어있다. 이는 원칙만 정해져 있을뿐 시행착오로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구설립을 위한 예산지원 및 중국당국과의 交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8-2. 지원기관의 유기적 지도체계 및 정보체계 강화

상술한대로 우리나라의 수출드라이브정책에는 KOTRA,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기타 많은 국책연구소의 협조와 지원가운데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과거 지원기관의 기능은 수출시장 개척 또는 진입을 위한 지도와 안내의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만큼 우리기업이 幼兒産業 단계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해외진출에 대한 책임은 기업 자신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기업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제공하는 첫째 과제와 상담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는 둘째 과제가 강조되는 시점이다.

먼저 정보수집 및 제공 확대에 대하여 논하여 보자.

1980년대 들어 국책연구소 이외에 은행 및 금융기관 산하의 많은 민간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이들 연구소는 선진국도약에 많은 寄與를 수행할 충분한 인력자원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이들 지원기관과 각 연구소간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未始한 느낌이다 미국의 경우 10만명 정도의 중소도시에서도 그 지역내의 대학도서관 시립도서관 병원도서관 등 모든 정보서비스 기관간에는 D/B화 되어 있어 한 테마에 대한 정보가 어느 곳에 있는가를 아무도서관 또는 연구소에서 쉽게 알 수 있으며, 이에따라 합리적 정보수집이 단시간내에 가능하다.

우리 기업들의 자료입수면에서의 애로사항은 중국전체에 대한 정보에 있지 않고 지역별 (省市別)로 具體的인 관련자료의 입수에 있다 즉 성시별 관련법규 및 투자환경, 업종별 유통채널에 대한 정보는 물론 이해가 어려운 중국법률의 해설자료와 실무적으로는 투자허가취득, 현지법인 설립, 공장건설, 조업원 모집, 원자재 구입, 생산과 판매 등의 각 단계별 절차, 방법 및 표준양식을 정리한 메뉴얼을 지역별, 사례별(성공 및 실패 사례)로 집대성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각 지원기관들이 새롭는 자료는 통일성이 결여되어 기업담당자가 보는 연구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多々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기관들이 공동으로 중국관련 정보를 지역별, 업종별로 체계화하고 유망업체 목록을 추가한 <중국에의 투자진출을 위한 D/B>를 구축하여 수시로 최신정보를 Up-date하면서 하이텔, 천리안 통신을 통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 중국투자에 대한 정보보급을普遍化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10년간의 사례조사 결과가 많이 연구되고 발표되고 있다. 바라건데 예산과 인원을 회충하여 우리보다 앞서 진출한 대만, 홍콩, 일본 중소기업의 사례조사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이 과정에서 그들 국가의 연구물을 단순히 번역하는 사업 이외에 현지를 방문하고 조사함으로서 현장감 있고 괴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되도록 지원기관의 능동적 서비스가 요망된다.

다음으로 정부와 기업이 못하는 상담서비스 및 협력체제의 강화에 대하여 논하여 보자.

지방자율권이 상하고 성시별로 民間團體가 散在한 중국시장에서 각 지원기관이 해야 할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민간단체 또는 성시별 경제협력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강화함으로서 중국진출 우리기업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sup>13)</sup> 사례조사에 의하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모든 省市에 分會를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이 먼저 그 지역 분회를 방문하고 유대를 맺은 다음에 우리나라 지원기관에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지원기관은 먼저 중국내 어떤 민간단체들이 존재하며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별로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투자진출 안내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창구를 통하여 이를 투자기업 및 투자회망업체에게 최대한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밖에 지원기관은 진출업체간의 過當競爭止揚은 물론 우-리업체 간의 협력체제가 강화되도록 신출업체간에 지역적 연락망을 구축하고, 특히 유통망 부족과 마아케팅 능력 부족 등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와 유통부문에 강점을 갖고 있는 대기업간의 업무협조가 상화되도록 유도하여 대-중소기업간의 효율적 체계구축하는데 그 역할의 의의가 있다.

### 8-3.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새로운 자세

우리나라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는 責任意識의 缺如에 있다. 물론 기업의 역사가 짧고 정부 주도의 경제체제의 산물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정보화 글로벌화 추세의 미래 지향적 견지에서 기업인의 책임의식涵養은 필수적이다. 중국에의 직접투자도 정부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지원기관의 협조와지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최종 결정과 책임은 기업인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중국진출기업 및 진출 희망기업의 과제를 논하여 보자.

첫째, 사전에 충분하고 철저한 조사와 연구 및 Consulting의 과정을 거치고 비용이 들더라도 現地踏査를 거친후 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철저한 조사란 입지조건에서부터 원자재 조달, 종업원 고용, 생산, 수출, 판매 등 모든 부분에 걸쳐야 하며, 충분한 연구와 Consulting이란 주로 성공과 실패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현지조사는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하며, 현지의 기업관습, 현지인의 기업문화 및 해당지역의 실질적

13. 김승남, "국제화 시대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진출 전략.(단행본) 1993.8. p.16

### 有志把握 등을 가능케 한다

둘째, 장기적인 眼目을堅持하면서 現地化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장기금융혜택이 적은 관계로 단기 송부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럴수록 노사분규가 심하게 나타났다. 가능하면 빨리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제외한 생산 및 노무관리는 현지인을 통한 간접관리 방식을 택하고, 종업원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한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사분규豫防策임은 국내 기업활동에서도 경험한 그대로이다. 더욱이 외국기업에 대하여 차별이 심한 중국사회이지만, 애매한 법보다 인간관계와 情的인 관습에 의해 움직이는 중국사회이기에 중국에 뿌리내린 중국 또는 그 지역을 위한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으로써 각종 차별을 회피하고 경영합리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sup>14)</sup>

셋째, 우리기업간의 지나친 競爭을 삼가하여야 한다.

이는 중동지역에서 절실히 경험한 사례이다. 물론 중동건설 과정에서의 우리 기업간의 과당경쟁은 주로 건설관계 대기업의 경우에 속하지만, 만일 중국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간에 과당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기업 상호간으로 파급된다면 그로인한 이득은 현지의 일본기업 등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중국투자에 크게 성공한 대만의 경우 언어와 관습의 이점도 있으나 그들 나름의 긴밀하면서도 특이한 협조체제가 성공의 원동력이었음은 그들의 사례조사에 많이 나타나 있다.

물론 합리적인 경쟁원리를 통한 생산성향상은 좋은 논리이지만 시장경제가 미발달된 중국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갖추지 못한 우리 중소기업간의 과당경쟁은 경쟁기업간의 효율성을 떨어뜨림은 물론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터전의 확장을 遲延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한국의 대기업과의 유대관계를 넓히는데 있어서 한 중소기업의 독단적인 제휴보다 업종이나 지역간에 관련된 여러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하청, 유통분담, 판매, 납품 및 수출을 한다면 그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많은 중소기업에게 나아가서는 대기업과 한국경제에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 IX. 맷는말

중소기업의 중국시장에 대한 직접투자의 의의와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대기업 偏重의 국내 기업구조화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효율추구를指向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대륙진출을 겨냥한 시장개척에 있으며, 보다 장기적이고 궁극적으로는 한국경제의 위상을 대륙으로 전개함과 아울러 남북간의 경제교류는 물론 남북화해의 터전을 형성함으로써 韓民族의位相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과거 30여년간 경제 제일주의 혹은 실적위주의 가치관이 경제외적 가치관을 衰失시켰다고 할지 모르나, 경제외적 가치관의 상실을 豪慮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경제문제와 기타 경제문제에 수반되는 고용, 소득, 소비 등의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經濟力의擴張이라는 개념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의 의의는 중국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는 물론 북미와 유럽, 남미와 아프리카 등 세계로의 진출의 橋頭堡가

14) 상계서 pp.19-20

되고 그 주체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라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본 고에서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실적에 대한 통계자료와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금융기관과 각 연구소의 설문 및 사례조사보고지를 이용하여 중국현지 우리 중소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와 지원기관 및 해당기업의 과제를 논하였다. 정확한 자료의 부족으로 설문조사의 결과에 依存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선비투자, 생산성, 판매액, 수출입, 노사문제, 수익성, 경쟁력 등 모든 경영성과가 정확한 통계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중국의 省市別 기업환경을 비롯하여 중국의 각종 법률 및 정책 등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並行되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東 書-

1. 국제경영연구회, 글로벌시대의 국제경영학, 영지문화사, 1996.1.
2. 김명률.박기안,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전략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기업의 국제경영 쇠팽.법문사, 1995.1. pp.227-255
3. 김시중,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한국의 진출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1-07, 1991.
4. 김시중, 민윤기, 유재원, “해외직접투자의 현황과 정책과제”, 정책자료 92-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9
5. 김승남, “국제화 시대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진출 전략.(단행본) 1993.8.
6. 김승남, “2000년을 향한 중국과 한국의 경제 무역 협력방안 : 문제점과 대응”(단행본) 1993.5.
7. 김승남,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길립성 투자환경 분석” (단행본) 1994.12.
8. 김준동, 글로벌화 시대에서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성책자료94-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12.
9. 김준동, 강인수, Outward FDI and Exports: The Case of Korea and Japan, 1992.
10. 박태호.나인강,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토의 자료 89-11, 한국개발연구원, 1989. 12.
11. 송경식, 국제자본이동의 경제적 효과, 한국산업은행 경제브리프스 제505호, 1993.4.
12. 양동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분석과 전략적 대안”, 한국기업의 국제경영전략.법문사, 1995.1. pp.193-226
13. 정구현, 국제경영학(제3판), 법문사, 1995.2.
14. 정구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전략, 중소기업 특별연구 93-84.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3.12.
15. 통상산업부, 수출통계, 1995.5.
16. 하홍섭, “대홍설리콘의 중국진출사례”, 한국기업의 국제경영전략, 법문사, 1995.1. pp.256-290
17. 한국무역협회, 대중국 교역 및 투자안내, 국제 95-12, 1995.5.
18. 한국무역협회, 중국 경제관련 법령집, 1995.
19. 한국무역협회, 중국투자 우리기업의 경영실태와 성과, 국제 95-01, 1995.3.
20. 韓國輸出入銀行, 輸銀 調查月報, 각월호
21. 韓國輸出入銀行, 中國의 성별 투자환경, 해외투자연구소 투자가이드 94-2, 1994.3.

22. 韓國輸出入銀行, 투자실무정보 중국, 해외투자연구소 업무참고자료 95-3, 1995.11.
23. 韓國輸出入銀行, 해외직접투자경험사례, 해외투자연구소 조사자료 94-2, 1994.12.
24. 韓國輸出入銀行, 해외직접투자경험사례, 해외투자연구소 조사자료 96-1, 1996.1.
25. 韓國輸出入銀行, 해외투자관련 계약서문례, 1996.1.
26. 韓國銀行 외환업무부, 해외투자 통계연보, 외환업무사료 95-B~5, 한국은행, 1995.
27. 韓國銀行 외환업무부, 해외투자 범인 현황, 한국은행, 1995.6.30
28. 한국은행 조사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제도, 한국은행 사내조사자료, 1994.10.
29. 한국은행 조사제1부,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수출구조 분석, 조사연구자료 95-18, 1995.10.
30. 한국은행 조사제1부,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 -해외직접투자와 수출간의 관계분석을 중심으로 조사연구자료 95-22, 1995.11.

- 佯 書 -

31. Eaton, J. and Tamura. A., "Bilateralism and Regionalism in Japanese and U.S. Trade and Direct Foreign Investment Patterns", NBER Working Paper No. 4785, 1994.
32. Edward M.Graham, "U.S.Direct Investment Abroad and Export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Some Empirical Results Based on Cross Sectional Analysis". Copyright IIIT, 1995.
33. Jai-Won Ryou, "Korean Outward Direct Foreign Investment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Asia-Pacific".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n the Pacific Basin, held at Univ of Calif, Berkeley, June 29-30, 1995.
34. Magnus Blomstrom, Robert E.Lipsey, and Ksenia Kulchycky, "U.S. and Swedish Direct Investment and Exports." Baldwin ed. 1988.
35. Wakasugi, R., "Is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a Sub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Japan and the World Economy, 1994.